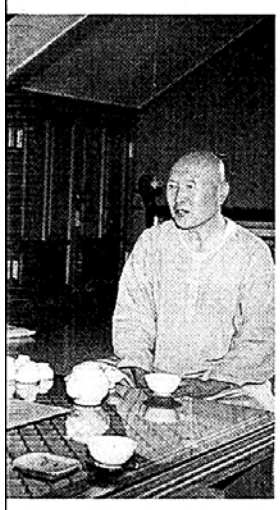
처럼 섬기는게 진정한 예불"

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하면 극락
서 이루고
로 퍼지면
가 되는것



에서만 부처님을 찾는 것을 경계하는
로 만드는 일임을 강조하신다.

조심하고 삼배를 지극하게 올
지만 살아 있는 부처, 즉 가장
까운 부모님, 남편, 아들을 섬
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
고 삼베자루에는 물을 채울 수
다는 식의 헛된 믿음과 착각,
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으
그것 또한 우리의 병통이지

한 스님은 많은 불교인들이 불교
생활 속의 실천과는 동떨어진 것으
엄똥하게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
"구심점 자체가 엉똥한 데 가

있어요. 나를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던지는 첫 질문은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답이 법당으로 가요. 그 다음으로 '예불은 잘 하고 있습니까?' 거든요. 역시 모두 법당으로 가요. 그러나 나는 늘 강조합니다.

내 가족 앞에 예불하는 것, 내 가족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불이고 부처님 모시는 일이라고요. 내 가족 앞에 예불하는 것이 불교인의 가장 기초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위해주고, 부드럽게 말해주며 화목하면 그게 바로 극락이에요. 죽어서 극락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극락이 우리집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옆집으로 옆집으로 퍼지면 바로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불자들이 불교가 경전이나 법당에만 있다고 알고 있거나 죽어서 극락을 간다고 알고 있어요. 매일 한번씩 가족들을 향해 '지금까지 마음 불편하게 해드린 것을 참회하오니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는 일 순탄하소서 ' 하는 축원의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불교의 실천입니다. 우선 내 집에서, 내 일상에서 복을 심고 언행이 바뀌어야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기운이 돌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이들을 제도하게 되는 대원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원력 자체가 대우주의 기운이요 본바탕입니다. 지혜, 원력, 복의 작용이 모두 우주의 작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이 흔들리지 않고 실천이 투철하면 언제까지나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말은 언제나 부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있으며 대우주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님은 우리의 현실은 대우주, 즉 불성의 주춧돌과는 동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음을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좇아간 결과 고통의 씨앗을 심게된 셈이다. "사람들이 자신밖에 몰라요. 심지어 자식도 생각하지 못해요. 내 눈앞의 이익만 좇아 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해놓으면 결국 자식들이 피해를 보는 데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깎아 먹는 행동을 해놓고는 복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환경문제만 봐도 당장 눈앞의 편의나 돈 몇 푼의 이익만 좇아 환경을 파괴해 놓고는 자연의 혜택을 바라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만 좇는 어리석고 흐려진 마음을 대우주의 근본과 하나인 불성의 주춧돌로 대체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맑게 하는 일이 환경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주춧돌을 바로 세워 우주의 원리와 하나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진정한 모습이고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공양 후 마당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요사채 불사로 어지럽혀진 공사 현장에 곳곳에 늘려 있는 밧줄이나 호스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당 땡볕에 묶인 긴 혓바닥을 내밀고 있던 반야라는 개의 줄을 풀어 함께 걷기 시작했다. 순간 산보라도 가시려고 그러나 했더니 다만 반야를 그늘로 옮겨주려는 것이었다. 나무그늘 밑의 시원함 속에 반야를 옮겨놓는 자상함과 세심함에 잠시 놀랐다. 20년 전 조그만 촌집을 구해 '금오산방' 이라는 이름으로 기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스님과 인연이 된 보리수 보살은 "스님은 참 자상하고 신도들이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대해주시지만 공부 좀 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리수 보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통을 치거나 다시는 못 오게 하실 정도로 엄격하신데 당신이 워낙 겸손하시고 삼배도 잘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 아무도 이유를 붙이지 않게 된다"고 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거사님이 찾아왔다가 호통을 듣고 돌아갔는데 죄송하다고 다시 찾아뵙겠다고 연락이 왔노라고 귀띔했다.

금자라가 달을 머금었다는 뜻의 함월사는 일본 묘심사의 개산조였던 간잔 에겐 선사의 회상을 떠올리게 한다. 간잔 선사를 어떤 승려가 찾아왔다. "그대는 무슨 일로 왔는가?"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왔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생사란 없다." 그 승려는 쫓겨났다.

우룡스님이 머물고 계시는 함월사 역시 밝음도 어둠도 없고 생사도 없다. 금자라가 머금은 은근한 진리의 달빛만이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있을 뿐이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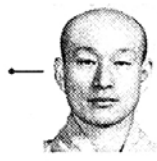
우룡스님은?

우룡스님께는 삼배를 드리기 어렵다. 찾아온 객이 삼배를 하면 당신도 같이 삼배로 답하기 때문이다. 처음 스님을 뵈었을 때 법을 청하는 삼배를 올렸다가 어김없이 삼배를 받는 낭패를 겪었었다. 이후 우룡스님께는 예를 갖추기 위한 일배만을 드리게 되었다. 지금도 스님은 찾아오는 이가 삼배를 하면 "우리 동네 사람 아닌가 봐" 하시며 삼배로 답례를 하신다. 또한 당대 불교의식을 대표하는 스님이었던 대후스님으로부터 불교전통의식을 전수받는 스님은 불교의식의 바른 전통을 고수하려는 노력이 남다르다. 잘못하는 것을 봐도 '잘하네. 그려' 하면 그만이던 대후스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인연닿는 곳이면 어디든 바른 불교의식을 전하려는 숨은 노력가이기도 하다. 불교의 예식이 뿌리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강사가 없어 곤욕을 치르는 것 모두가 '좌복 위 참선' 만 중시하고 있는 현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염불, 경, 참선 등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국불교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1932년 일본에서 태어난 스님은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와 47년 해인사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63년 김천 청암사 불교연구원 전강을 시작으로 화엄사 법주사 범어사 강원 강사를 역임했으며 쌍계사 통도사, 직지사 등의 제방선원에서 수행하기도 한 스님은 '불교신행의 주춧돌' '영가천도' '생활속의 금강경' 등의 저서와 자상한 생활법문으로 대중들을 제접하고 있다.

화엄사 강원강사 역임… '생활속 금강경' 등 저서

내마음의 주춧돌 바로세워
우주원리와 하나되어 살아야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월스님

(전호에서 계속)

스님의 하심하시는 모습은 누운 풀처럼 부드러웠다. 언제 어디서고 누구에게나 자비심 충만한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했으며, 또 인욕하시는 모습은 높은 산처럼 견고해 어떤 경우에도 수도자에서 벗어난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내가 동료들과 언쟁을 하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 억울해 하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오셔서 "사나이 대장부가 이왕지사 출가하였으면 모든 것을 산문 밖에 던져버리고 부처님 될 일만 생각해야지요"하고 위로하셨다. 내가 이런 저런 하소연을 하면 "아, 보살이 생각해 보세요. 출가한 자로서 이것저것 세상의 옳고 그름을 모두 따지다 보면 언제 수행합니까? 참으세요. 어금니를 지그시 물고 꾸욱 참아야 합니다. 그 스님이 당신에게 참으라는 법문을 해주는 겁니다. 억울할 때 참아야지 언제 참습니까?" 하시며 내가 분을 삭이고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 손을 잡고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셨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하심과 인욕을 실천하셨고 따뜻함 하나로 모든 이들을 대하셨던 그분을 모시고 살았던 모든 이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스승이란, 이름을 걸어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경책(警責)이며 지도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월스님은 대중들이 가슴에 품고있던 문제를 모두 자상하게 지도해 주셨던 영원한 스승이었다.

수행의 힘이란 이론과 논리의 전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박학다식하더라도 자비심을 실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수행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지월스님께서 가끔 설법하실 때가 있었다. 스님께선 무슨 거대한 이론을 펼치진 않았으나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 닿는 살아있는 법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자비가 살아 숨쉬는 따뜻함이란 것을 알았다.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하던가, 하심의 모습만큼 큰 가르침이 있던가. 이를 알게 하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일주문 부근에서 휴지를 줍고 계실 때, 한 젊은 스님이 커다란 걸망을 메고 올라왔다. 통도사 강원 학인으로, 알고 보니 통도사 강원에 문제가 발생해 싸움을 하고 반이 깨져 해인사로 방부들이러 오는 길이었다. 스님은 휴지를 줍던 손을 놓고 젊은 객스님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어느 도량에서 오는지, 은사스님은 누군지, 예의 그 따뜻함으로 물었다. 젊은 객스님은 통도사의 '통' 자에 힘을 주며 통도사에서 온다는 것과 은사스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스님께서 "통도사는 우리나라 제일의 도량이니 참 거룩한 도량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스님은 참으로 거룩한 스님이지요" 하시자, 객스님은 "알아 보니 다행입니다" 하며, 이름을 모르는 노스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나중에 그 젊은 객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지만, 지월스님께서는 객스님이 사양하는 걸망을 끝내 받아 지고 친히 안내하여 화장실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장래 한국불교 운명이 보살의 두 어깨에 달려 있으니 중노릇 잘할 것을 특별히 부탁한다"는 말씀과 "사나이 대장부가 출가를 했으니 이제는 어금니 물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오직 부처되는 길만을 생각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자상한 당부는 저녁 예불을 마친 뒤 삼경종(三更鐘) 칠 시간까지 계속되었다. 노스님께서 젊은 스님의 손을 잡은 채, 하신 말씀을 거듭하니 젊은 스님은 이제 노스님께서 빨리 돌아가 주었으면 싶었다. "이젠 그만 쉬십시오. 내일 새벽 예불마치고 또 오겠습니다"라는 스님의 말씀에 젊은 스님은 화들짝 놀라며 소리치다시피 "또 오시겠다구요? 도대체 노스님은 불명을 뭐라고 하십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소승이 실수를 했군요. 소승은 지월이라고 합니다"라는 말씀에 젊은 스님은 놀라 넘어질 뻔했다. 지월스님이 해인사 주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얼굴을 뵙지는 못했던 터였다. 주지스님이 이렇게 키가 작고, 기워신은 검정 고무신에다 누덕누덕 기운 가사를 입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젊은 스님이 자신의 무례함에 용서를 구하자 스님께서는 도리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즉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며 깊숙이 머리숙여 사과하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만하고 혈기에 차있던 젊은 스님은 그날 단 하루만에 자신의 오만을 꺾고 하심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스님처럼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통도사에서 다투고 나온 자신이 부끄러웠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계속) ▨ 구미 영명사 주지

노소불문 누구에게나
자비와 하심으로 대해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재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到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알고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주)한국자연과학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아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이
제품을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
입니다.